KT, 고3 수험생 위한 '언택트 입시설명회' 생중계

윤윤구 강사 참여… 대입 준비방법 소개

KT는 지난 16일 올레tv와 시즌, KT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대한민국 대표 입시강사 윤윤구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3 대상 입시설명회 생중계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입시 일정이 변경되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시기를 겪고 있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강연은 효율적인 대입 준비 방법을 소개하고, 수험생·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약 1시간 40분동안 진행됐다. 코로나19가 수시와 정시에 끼치는 영향, 정시를 앞둔 재학생 공부법, 논술 준비 방법, 학사일정 연기에 따른 입시 로드맵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윤윤구 선생님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효율적인 대입 준비 방법에 대한 강연을 관중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KT

KT는 오는 20일부터 올레 tv '라이브 특집관' 메뉴에서 '윤윤구쌤과 함께하는 명쾌통쾌 입시설명회(고3 과정)'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서 오는 23일 오후 1시에는 중3 대상 명쾌통쾌 입시설명회도 생중계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11번가,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 위한 기부캠페인

커머스포털 11번가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고객들의 착한소비를 돕는 '세이브위드스토리' 기부 행사를 실시한다.

'세이브위드스토리'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집안에만 머무는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인기 셀럽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 동참한 셀럽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화를 읽는 영상을 해시태그(#세이브위드스토리, #savewithstories)와 함께 게재하는 방식이다.

'세이브위드스토리' 캠페인과 기부행사가 함께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11번가와 세이브더칠드런은 일반 고객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수익금 전액 기부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위기가정의 긴급 생계비, 의료, 교육, 주거환경비 등 국내 아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1번가 '세이브위드스토리' 도서와 굿즈. /11번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

기자 수첩

구 서 윤
〈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언택트 문화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 근무를 비롯해 음악 공연, 대규모 설명회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당연히 만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들이다.

어색함은 남아 있다. 온라인 술자리의 경우, 각자 마실 거리와 음식을 준비해 화면 앞에 앉아 사람들을 만나는데 화면을 통해 건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환경이 낯설다. 코로나19 이전 시대에서는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닌 경우 일대일 화상통화도 잘 이용하지 않았던 탓이다.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에도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접촉할 일도 없어졌다. 코로나19 전에는 시도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만나서 음식과 돈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기존에는 만나서 일 처리하는 게 더 편하고, 만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한 과정은 오히려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환경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언택트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를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은 언택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언택트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 이어 엔데믹(주기적 발병)이 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이다.

편리한 부분이 많아졌어도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전에 느끼던 일상의 소중함은 그립다. 언택트의 장점도 많지만 직접 만나 눈을 마주 보고 이뤄지는 대화와 감정적 교류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언택트가 낯선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향후 언택트가 가속화 할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 같다. /yuni2514@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경치는 좋으나 인심이 박하다. **48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60년생** 가지 못 한길에 미련이 남는다. **72년생** 변화무쌍한 날이니 운전에 주의해야. **84년생** 무더위가 갔다고 그늘에 덕을 잊으면 안 된다.

37년생 파란색과 숫자 13이 행운을 준다. **49년생** 제2의 인생을 열려면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 **61년생** 자녀에게 하는 칭찬은 보약이다. **73년생** 신용이 우선 중요하다. **85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를 덮어주면 우연히 보답을 받는다.

38년생 마음으로 웃으면 복이 온다. **50년생** 갈팡질팡 중심 잡기가 힘들다. **62년생** 불만은 가족에게도 나타내지 마라. **74년생** 계속될 삶이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실행. **86년생** 노력을 안 하니 부러워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39년생 늦지 않았으며 실패는 성공을 위한 좋은 밑거름. **51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 **63년생** 놓친 고기가 크게 보이는 법이다. **75년생** 이직은 후회를 낳게 되니 숨 고르기로. **87년생** 불평보다는 실력을 쌓도록 하라.

4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으로 재충전하자. **52년생**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이 순리이다. **64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76년생** 눈치 보지 말고 뜻대로 결정. **88년생** 희망을 버리면 모두 잃게 된다.

41년생 분배에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라. **53년생** 꼬임이 많으니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65년생** 일하기 싫으면 변명만 보인다. **77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해서 하지 마라. **89년생** 부부간에도 배려와 존중이 필요.

42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4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라. **66년생**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7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상쾌한 하루. **90년생** 송사에 엮이기 쉬우니 말조심.

43년생 오늘의 초대는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조심. **55년생** 불경스러운 말은 듣지도 말고 행동. **67년생** 행복이 멀리 있지 않으니 주변에 있다. **7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주의. **91년생** 가정의 화목이 최고의 행복이다.

44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다. **56년생** 남의 단점만 보려하면 원망을 듣는다. **68년생** 영원한 적은 존재 하지 않는다. **80년생** 다다익선이니 모을 수 있을 때 모아라. **92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4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언행을 조심하라. **57년생** 언제나 기본 성실함은 솔선수범이다. **69년생** 돼지띠와의 만남으로 걱정거리가 해소. **81년생** 과거의 인연이 속을 썩인다. **93년생** 삶은 계속되고 실행할 시간은 많다.

46년생 재산 나누는데 확실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니 머뭇거리지 마라. **58년생** 이만하면 건강하게 좋은 인생이다. **70년생** 병문안 갈 일이 있다. **82년생** 말보다 나누는 행동으로 보여줘라. **94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행복한 하루.

47년생 마른 논에 물들어 오듯이 문제가 해결된다. **59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71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83년생** 없어도 웃어야 하는 현실이 울적하다. **95년생** 일취월장할 기회이다.

김상회의 四季

만물의 근원, 수(數)

세상의 기원이나 만물의 근원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테마다. 이러한 탐구와 호기심이 종교가 탄생하게 된 시초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 지성이 풍요롭게 피어난 고대 헬레니즘 문화는 너무나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그리스로마 신화를 탄생케 했다.

그리스신화의 태동을 보자면 인간의 탄생과 그 이전을 보여주는 여러 상징과 은유가 다채롭게 묘사된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만물의 근원을 수(數)로 본 이가 피타고라스다. 수학 시간에 너무나도 친숙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나오는 피타고라스다.

수학자면서 철학자였던 그는 점성학의 대가였다. 천문학에서 지동설이 인정받은 것도 기원후 1600년 이후의 일인데, 기원전 5, 6세기를 살면서 지동설을 설명했다. 자신이 창설한 피타고라스학파를 이끌었는데, 다양한 연구를 하였음은 물론 윤회론을 인정하면서 혼(魂)의 정화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단체를 이끌었다고 알려진다.

그 오랜 세월 전에 현대인의 과학적인 기구와 도구 없이 우주 질서의 실체에 정확하게 접근했다. 그는 바다의 끝에는 낭떠러지라는 굳은 믿음이 확고할 때에 이미 지구가 구형(球形)임을 확신했다.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며 지구는 그 태양 주위를 공전함을, 지구의 낮과 밤 역시 지구의 자전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이미 설명했다.

그는 우주를 코스모스라 부르면서 인간들이 사는 이 세계와 더욱 완벽한 저 이상향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우주의 진실을 풀어나가는 데는 수(數)가 매개체였으며 세상을 구성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요소로 본 것이다. 주역도 괘와 효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팔괘와 육십사 효를 가지고 조합하고 분석한다. 역시 수의 조합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문제출제: 손호성**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도쿠는 가로,세로,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5	
	1			7		9		
		3	5		1			4
		7			9		6	
2								1
	8		4			5		
1			7		2	8		
		8		6			7	
	5			4		3		

			7			6	2		3		
	1			B				6			5
	C			A		4			9		
		7	A	C			9			2	8
8	B			5			7	1		C	
4		3	C			2			6		A
7		6			9			B	A		C
	4		9	6			8			3	1
A	3			2			5	4	8		
		2			3		B			9	
B			5				6			8	
		4		9	1			7			

정답

9	2	6	3	8	4	1	5	7
4	1	5	2	7	6	9	3	8
8	7	3	5	9	1	6	2	4
5	3	7	8	1	9	4	6	2
2	9	4	6	5	3	7	8	1
6	8	1	4	2	7	5	9	3
1	6	9	7	3	2	8	4	5
3	4	8	1	6	5	2	7	9
7	5	2	9	4	8	3	1	6

9	A	5	7	1	8	6	2	C	3	4	B
3	1	8	4	B	7	9	C	6	2	A	5
2	C	B	6	A	5	4	3	8	9	1	7
1	6	7	A	C	4	3	9	5	B	2	8
8	B	9	2	5	6	A	7	1	4	C	3
4	5	3	C	8	B	2	1	9	6	7	A
7	2	6	8	3	9	1	4	B	A	5	C
5	4	C	9	6	A	B	8	2	7	3	1
A	3	1	B	2	C	7	5	4	8	6	9
C	7	2	1	4	3	8	B	A	5	9	6
B	9	A	5	7	2	C	6	3	1	8	4
6	8	4	3	9	1	5	A	7	C	B	2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도쿠 사무라이스도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49호